

# ‘원 팀! 원 드림!’ 파리 올림픽 100일 앞으로... “금 5개 예상”

오는 7월 26일 개막...역대 3번째 파리서 개최

2020도쿄 올림픽서 종합 17위 역대 최악 성적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이 결의를 다졌다.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2024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원 팀(ONE TEAM)! 원 드림(ONE DREAM)’이 열렸다.

1900년, 1924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는 206개국에서 약 1만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45개 종목에서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은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에 그쳤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19위 이후 45년 만에 최악 성적이었다.

이번 올림픽에 한국은 최대 170~180명의 선수를 보낼 예정이다. 이는 50명을 내보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현재 경기력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최근 추세로는 금 5개, 종합 순위 15위권 정도를 예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0위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다”며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한계를 넘어 목표한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100일 후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 “이번 올림픽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케어풀(CARE-FULL) 프로젝트’를 수립,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속적인 경기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케어풀(CARE-FULL)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5대 전문 케어팀 운영, 1대1 맞춤형 의·과학 지원, 현지 적응을 위한 훈련 환경 제공이 주요 골자다.

체육회는 심리, 회복, 영양, 균형, 커스터마이징 등 5대 케어팀을 운영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의학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전문가 심리 코칭도 지원한다. 신체적으로도 빠른 회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회복 기술을 제공한다. 선수별 맞춤 식단 계획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수식당 내에 ‘리커버리존’도 신설한다.

중목에 따라 특별 강화훈련 인원을 증원해 배정하고, 국외훈련시설과 차량 임대료, 훈련용 기구 등 운반을 위한 초고 수화물비도 제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선수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한다. 체육회는 경기력 최적화와 신속한 컨디션 회복을 위해 14개 종목, 20여명의 주요 선수들에게 주치의와 전담 물리치료를 배정해 올림픽 현장에도 파견할 예정이다.

영상 촬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전담팀도 운영한다.

체육회는 해당 지원 내용에 의료를 의미하는 메디컬(Medical)과 데이터(Date)를 합해 ‘메디닷 서포트’라 이름 지었다.

아울러 체육회는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 84km 거리에 위치한 프랑스 퐁텐블로의 국가방위스포츠센터(CNSD)에 대해 개막 2주 전인 7월 12일부터 폐막일인 8월 11일까지 사전훈련 캠프를 진행한다. 체육회가 올림픽에서 사전 훈련캠프를 진행하는 것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약 1만6950㎡ 면적의 사전훈련캠프에는 실내 훈련시설 3개동, 육상, 럭비, 축구 등 실외 3개 종목 구장이 갖춰져 있다.

또 급식을 지원할 선수 식당을 운영하고, 선수휴게라운지와 영상분석실, 전략회의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기흥 회장은 파리 올림픽 선수단장에 경강선 전북체육회장, 부단장에 이상현 대한하키협회 회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경강선 선수단장은 “이기흥 회장님께서 금메달 5개를 예상하셨는데 의외의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DNA와 저력이 있다.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선수 분들이 많은 생각과 부담감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1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경강선 선수단장, 황선우, 이다빈 선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처음 선수촌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한다”며 “처음 운동을 시작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주길 바란다. 앞으로 난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견뎌왔던 경기 날까지 건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미란 차관은 “예상 순위와 목표를 보면서 우리나라 체육이 자리가 좁아지는 아쉬움이

있다. 차관으로서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가대표 선수단의 공식 파트너인 영원아웃도어는 시상식 단복과 일상복을 공개했다. 선수단 공식 단복은 건곤관리의 ‘갑패’와 태극 문양의 ‘음양’, 팀 코리아 캘리그라피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 “으라차차!” 보성군,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MBC 스포츠플러스’ 채널에서 개최식 행사 및 경기 방송중계



보성군은 오는 19일까지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벌교스포츠펀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체육회와 보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하며, 초·중·고·대·여자 부분 단체전과 개인전 7

체급(경장·소장·청장·용장·용사·역사·장사) 전문 씨름선수 876명이 최종 참가했다.

4월 15일 개최식 행사에는 보성군 김철우 군수,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보성군체육회 이광수 회장, 보성군씨름협회 김경열 회장, 대한씨름협회 황경수 회장, 전남씨름협

회 손재근 회장 등이 함께했다.

15일 펼쳐진 중학부 단체전 결승전에는 경남 마산중학교가 강원 후평중학교를 상대로 최종 우승했다. 16일에 열린 대학부 단체전에는 경북 영남대학교가 경남 경남대학교를 상대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17일에는 여자부, 대학부 개인전 경기가 펼쳐지며, 18일과 19일에는 고등부 개인전 및 단체전이 진행된다.

개회식 행사를 시작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MBC 스포츠플러스’ 채널에서 중학부, 대학부, 여자부 결승전이 중계된다. 또한 유튜브 ‘살바 TV’ 채널에서도 실시간 경기 시청이 가능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차의 고장을 넘어 씨름의 고장이라 불릴 수 있도록 씨름 종목의 저변을 넓히고, 전 군민이 사랑하고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각종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해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5월 4일부터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2024 한국유티미스트 전국 요트대회가 개최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FC U-15 최건민 선수, 남자 U-15 국가대표 선발

오는 21일 개최될 이탈리아 국제축구대회 참가

순천시는 순천FC U-15 소속 최건민 선수가 남자 축구 U-15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2009년생으로 매산중학교에 재학중인 최건민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소집훈련에 참여해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지난 12일 22명으로 이뤄진 U-15 대표팀에 선발됐다.

U-15 대표팀은 2년 뒤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 출전하는 연령대이며, 오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2개국에 참가하는 이탈리아 토르네오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한다.

순천FC U-15 이영수 감독은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자세가 멋진 선수”라며, “광주, 전남,



제주지역을 통틀어 유일하게 선발된 선수로 지역을 빛내는 유망주”고 말했다.

한편, 순천스포츠클럽은 중등부 축구 전문선수반인 순천FC U-15를 운영하며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탁구·배드민턴·라인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지역사회의 체육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전남 수영 꿈나무,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서 금빛 물살 갈라

총 20개의 메달 획득.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제19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쳤다.

전남수영연맹(회장 황의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전남수영 꿈나무들이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8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수한려초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자유년부 자유형 50m와 100m에서 여수한려초 임지율이 금메달과 동메달 김루아가 은메달 2개를 획득했고, 여자유년부 접영 50m와 100m에서 임소은(여수한려초)이 금메달을 차지, 2관왕을 달성했고, 남자초등부 자유형 100m에 출전한 김석호(여수한려초)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영암초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남자초등부 배영 50m와 100m에 출전한 장윤은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초등부 평영 50m와 100m에 출전한 문소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화순오성초 유하진, 이지성, 박태민, 조윤호가 남자초등부 계영 400m에서 동메달, 평영 100m에 출전한 박태민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자유년부 평영 50m와 100m에 출전한 김하울(2학년)은 두 살 많은 형들을 제치고 동메달과 은메달을 추가했다. 장성사창초에서도 정근민이 남자초등부 자



여수한려초



영암초



화순오성초

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김민섭 선수의 모교 여수문수중에서도 남자중학부 자유형800m에 출전한 김태영과 박은결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 자유형 1500m에 출전한 박은결이 16분51초11로 동메달, 여자중학부 자유형 50m에 출전한 고태경이 27초29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황의준 전남수영연맹 회장은 “전국대회라는 큰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친 우리 전남 수영 꿈나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점차 한국체육을 이끌어갈 재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다”고 말했다.

## ‘U-23 아시안컵 첫 승’ 황선홍 감독 “선수들의 의지로 해냈다”

UAE와 조별리그 첫 경기서 1-0 신승

황선홍 한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승에 기뻐했다.

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7일 오전 0시30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후반 40분에 나온 이영준(김천)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거둔 한국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조 2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1-0으로 꺾은 일본과 함께 B조 공동 선두로 출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총 16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가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팀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한국 축구는 19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 도쿄올림픽까지 9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며 올림픽 최다 연속 출전 세계 신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다. 이번 파리행도 확정하면 기록을 ‘10회’로 늘릴 수 있다.

UAE를 비롯해 일본, 중국과 한 조에 속해 험난한 조별리그 여정을 걷는 황선홍호에 1차전 승리는 매우 긍정적이다.

황 감독은 경기 후 AFC를 통해 “어느 대회든 첫 경기는 변수가 많아 항상 어렵다”면서도 “오늘도 힘든 경기를 펼쳤지만 선수들의 의지로 해냈다”고 경기를 총평했다.

이어 “후반에는 공격 계획을 바꿨다. (처음에는) 2선과 3선 사이를 활용하려 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기대에 못 미쳤다”며 “(갑자기 계획을 바꿨으나) 선수들이 (바꾼) 내 계획대로 경기에 임했다. 이 부분을 칭찬하고 싶다”고 선수들을 칭찬했다.

결승골을 기록한 이영준도 “세트피스를 훈련했는데, 준비한 대로 득점이 나와 정말 기쁘다. 이번 득점은 혼자 넣은 것이 아니라 팀워크



17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한국 대 UAE 경기에서 앞서 황선홍 감독이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로 만들어 더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전달한 팀 동료인 (이)태석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결승골에 도움을 기록한 이태석(FC서울)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황선홍호는 오는 19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중국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